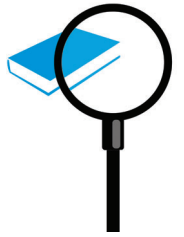


인물·사건·공간이 연결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인물 따라 공간 따라 역사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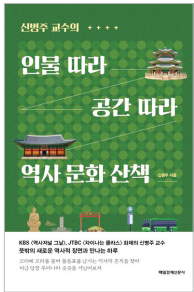
신병주 지음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해 정읍 무성서원,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이 해당한다.

세계유산은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인의 유산, 즉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정읍 무성서원은 신라 후기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는 변혁의 시대를 살았던 최치원을 배향한 태산사에 기원을 둔다. 최치원은 당시 지금의 태산(지금의 태인) 태수로 부임했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 서원의 건립은 조선 중기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워졌으며, 숙종 22년(1696년) 왕이 무성서원이란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됐다.

또한 무성서원은 구한말 항일 의병의 활동 거점 지이기도 하다. 병오년 최익현과 임병찬이 의병 활동을 전개했는데 '병오창의 기적비'는 서원이 강화 외에도 시대 상황에 의연히 맞섰던 공간임을 보여준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역사적 공간을 공부한다는 의미다. 역사가 전개되고 이뤄지는 곳은 특정 공간을 통해서다. 현장 답사는 역사적 의미를 가장 쉬우면서도 임팩트있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인물 따라 공간 따라 역사 문화 산책'은 현장 답사의 내용과 당시의 느낌 등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신병주 교수가 저자로 그동안 '역사저널 그날', '차이나는 클라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와 만나왔다. 건국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 '왕으로 산다는 것', '우리 역사 속 전염병' 등 우리 역사를 쉬우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냈다.

흑산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홍어와 '자산어보' 그리고 정약전이다. 그렇다면 자산어보에도 홍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할까. 정약전은 홍어의 생김새부터 효능, 식용 방법 등을 기술했다. 홍어의 원명이 붙어있어 홍어는 속명이라고 적고 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집필한 곳은 흑산도 사리마을의 사촌서실이다. 이곳은 사촌서당, 복성재(復性齋)로도 불리었다. 강진에 유배됐던 정약용은 형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사촌서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내 형님 손암(정약전) 선생께서 머나먼 남녘 조금한 섬인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흑산도 사촌서실. 사촌서실은 1801년(순조1) 산유박해로 인해 흑산도로 유배를 간 손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흑산도 사리마을에 있는 유배지다.

지 7년이다... 형님은 이미 초가집 두어칸을 짓고 사촌서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조선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외국 위원들은 산림과 숲길에 매료됐다. 조선 왕릉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풍수지리와 근접성이었다. 명당이면서 서울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조선 왕릉이 많이 조성된 곳이 구리시의 동구릉이

다. 태조의 무덤이 조성된 이후 왕과 왕비 무덤 8기가 이곳으로 오면서 "동쪽에 있는 9기의 능"이라는 뜻에서 그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영조의 원릉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쌍릉의 형태인데 영조 열자라는 50년을 함께한 정성왕후가 아니다. 영조가 예순여섯에 결혼한 열다섯 살의 신부 정순왕후였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시대의아름 '동구릉'

저자는 서울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아차산을 꼽는다. 한강을 낀 아차산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 다툼이 치열했던 곳이다. '아차산 고구려 보루' 유적은 고구려가 구축한 방어 시설을 일컫는다. 대부분 고구려 유적이 북한, 중국에 있는 데 반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아차산 보루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1990년대 후반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흥련봉 1, 시루봉 보루 등이 발굴됐다.

한편 책에는 궁궐 속 치유 공간 내의원, 경복궁 안 도서관 집옥재, 정동의 러시아공관, 대한제국의 상징공간 환구단, 추사 김정희의 예산 고택, 강릉의 허난설헌 생가, 제주도 향파두리성 유적지 등에 대한 내용도 기술돼 있다. <매일경제신문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숲을 읽는 사람

허태임 지음

"식물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사랑의 끈 같은 것을 생각한다. 서로를 잊고 있는 끈을, 겨우내 눈 속에 묻혔던 씨앗은 다음 봄이 오면 되도록 좋은 유전자를 고루 섞은 새로운 씨로 피어난다. 그 짙은 군락을 키우고 영토를 넓히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 세대를 잇는다..."

허태임 작가가 최근 펴낸 '숲을 읽는 사람'은 숲과 식물들을 관찰하며 얻은 생각과 감정을 담은 에세이다. 식물분류학자인 저자는 DMZ자생식물원을 거쳐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에서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는 식물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훼손된 숲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고 믿는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찰한다.

책은 삶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쪼레꽃, 뽕나무, 붉나무, 박주가리, 너도밤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언어를 읽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식물들의 생태와 생존 전략을 관찰하며, 그들의 삶에서 인간이 배울 점을 찾아낸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저자는 또 험준한 산속에서 식물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험과 어려움, 그 속에서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며 식물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책은 식물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 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 조용한 성찰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 생태나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지친 마음을 돌보고 싶은 누구누구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마음산책·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꿀벌세계와 꿀벌수의사

김용환·기혜영 지음

강아지나 고양이 아프면 동물병원을 찾는다. 그렇다면 꽃가루를 옮기며 생태계를 지탱하는 꿀벌이 병들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꿀벌 수의사' 김용환·기혜영 부부가 최근 꿀벌의 생태와 역할, 그리고 꿀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 '꿀벌세계와 꿀벌수의사'를 펴냈다. 이들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뒤 명예퇴직 후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꿀벌 전문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태계를 지키는 꿀벌의 위기 앞에서 "누군가는 이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양봉농가를 찾아 꿀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은 꿀벌이 단순히 꿀을 만드는 곤충이 아니라,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며 사과, 토마토, 견과류 등 식탁 위의 수많은 농작물의 수정에 기여한다. 세계 식량의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은 곤충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후 변화, 농약, 서식지 파괴,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위험하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닌 현실의 그림자다.

책은 꿀벌의 탄생과 생태, 질병과 천적, 꿀벌 수의사의 일상, 그리고 꿀벌을 지키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풍부한 삽화와 함께 쉽고 따뜻하게 풀어낸다. 저자들은 기후 변화와 농약 사용, 서식지 파괴 등 꿀벌 개체 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 현장 경험과 양봉농가 인터뷰,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생태 위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랑책방·1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음악을 한다는 것은

김보미 지음

국악과 록, 해금과 드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서양의 소리가 정교하게 맞물린다. 장르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기묘한 선율이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퓨전국악 밴드 '잠비나이'의 음악이다.

잠비나이 멤버이자 해금 연주자 김보미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해금을 품에 안고 살아온 음악인이 자신의 리듬으로 세상을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자, 악기를 매개로 수많은 존재들과의 교감을 담아낸 에세이다.

"예술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것이라 믿었고, 그 무리에 들기 위해 애썼다"는 저자의 고백은 동경하는 삶을 향해 부딪히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러나 더 많은 음악과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예술은 무대 위가 아니라 길가에 놓인 돌 틈 사이에서도 피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은 스스로를 향한 다정한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방황하던 저자에게 잠비나이의 결성이 '정답'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음악계에서 '시끄럽다'는 평가를 받으며 거부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흥대 앞 작은 클럽, 습하고 끈적한 지하 공간으로 향했다. 동료와의 호흡, 관객과의 조우, 무대 위에서 쏟아낸 감정은 종종 음악보다 더 음악 같았다. 그렇게 탄생한 곡, 타이틀곡 '소멸의 시간'이 결국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공연까지 닿았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치 해금의 고운 선율이 귓가에 머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저자는 '음악을 한다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한계와 마주하며 이겨내고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는, 외롭지만 돌아보면 수많은 동행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정이다. <북하우스·1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은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